

# “견고한 현역 조직력”...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양부남

### ‘원의 돌풍’ 강위원 제치고 당선 양 “호남 정치 복원에 화합·소통” 도당위원장엔 단독출마 주철현 주 “호남중심 민주정권 창출 전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에 당선된 양부남 국회의원. 뉴시스

‘원내 대 원외’ 인사 간 대결로 펼쳐졌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이 현역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전국적으로 불었던 ‘당원 중심·혁신’ 돌풍도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조직 벽을 뚫지 못했다. 선거기간 동안 발생한 비방·고소전·졸서기 정치 등의 생채기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기 당원대회를 열고 65.85%의 득표율(대의원 363표·68.88%, 권리당원 2만1081표·65.41%)을 기록한 기호 2번 양부남 후보를 광주시당위원장에 선출했다. 경쟁자인 기호 1번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는 최종 득표율 34.15%(대의원 164표·31.11%, 권리당원 1만1098표·43.39%)를 얻었다.

특히 이번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공관위원장 구성 및 광역·기초의원과 기초·광역단체장 공천권을 행

할 수 있는 자리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됐다.

최근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에 원외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이 3선 맹성규 의원을 제치면서 ‘광주도 원외가 파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왔다. 그러나 결국 광주 현역 의원들의 합의 추대로 나온 양 의원의 조직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강 대표는 선거 기간 동안 ‘구태·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 당선된 주철현 국회의원. 뉴시스

다. 현역 의원들은 여의도 정치에 집중하고 지역 정치는 원외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의원은 ‘현역 의원 8인 집단운영 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원외보다는 원내 의원이 소통·문제 해결 능력에 강점이 있다”고 강 대표를 도발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양 측의 공방은 더욱 거세졌다. 양 의원은 선거 하루를 앞두고 ‘광주청년 518명, 성비위 연루 강위원 후보 사퇴 요구’ 보도자료를 통해 “광

주 청년들이 강위원 후보의 성 비위·음주 운전 등을 지적하며 시당위원장 후보로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같은 날 반박문을 내고 “명예 훼손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과 관련자 모두에 대해 광주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구의원들의 ‘노골적인 시당 위원장 후보 졸서기’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지역 의원들은 선거 기간 양 의원의 캠프에 방문해 단체 지지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신수정 광주시장이 자신의 직을 내걸고 ‘양부남 의원을 지지한다’는 문자를 보내 시의회 내·외부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시의원은 “결국 의장도 2년 뒤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줄을 선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구태정치라 하지만 이게 현실”이라며 “강 대표가 사·구의원을 동원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 없이 35%의 득표를 했다는 건 꽤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원내의 승리지만, 반대파 4할은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다. 의원들의 반성·환골탈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광산구 지역위 관계자는 “(양

의원 선출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종식을 위해 ‘잘 싸울 검사 출신’에 대한 표 집중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 생채기가 많이 남은 선거였지만, 이제 목표는 ‘호남 정치 복원·정권 교체’ 단 하나다. 두 후보 모두 ‘진명’ 인사 아닌가. 극으로 치달았던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 현안을 위해 상호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전남도당도 나주 종합스포츠타운에서 정기 당원대회를 개최, 단독 입후보한 재선 주철현(여수갑) 의원을 찬성 80.77%(2만99표)로 신임 도당 위원장에 선출했다.

주 의원은 △2026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시스템 공천과 체계적 선거 지원 △윤석열 정권 견제와 호남 민주정권 창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자치분권 실현 △지구당 제도 부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전남 시범사업 발굴과 지방선거 공동 공약 제시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주 신임 도당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도당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준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당원 중심의 도당 운영으로 진정한 당원주권시대를 열고 호남 중심 민주정권 창출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지현·정성현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 광주 경선’

1면서 계속 이날 기준 최고위원 후보 8명의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17.58% △정봉주 15.61% △한준호 13.81% △전현희 12.59% △민형배 12.31% △김병주 11.82% △이연주 11.17% △강선우 5.12%(득표순)로, 5위 민 후보와 6위 김병주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0.49%p에 불과하다

민 후보가 광주·전남에서 목표로 한 30% 이상 득표를 올리지 못한 데는 호남 지역 당원 수 대비 저조한 투표 참여율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했던 광주 출신 송갑석 의원의 경우 광주에서 22.27%, 전남에서 14.5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투표율은 광주 34.18%, 전남 37.52%였으나,

이번 선거 투표율은 광주가 25.29%, 전남은 23.17%에 그치며 2022년 대비 무려 8~14% 이상 하락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타 시도와 다르게 올해 광주·전남의 경우 여름휴가 시즌이 겹치는데다 특히 전남, 전북의 경우 고령인구가 많아 전자기기 활용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ARS 투표로 진행되다 보니 투표하기가 어려웠다”며 “중앙당이 아닌 각 지자체 지역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투표 방법을 홍보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합동연설회 이후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서는 현역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이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를 꺾고 당선됐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에는 주철현 후보가 단독 출마, 80.77% 찬성으로 선출



김지수·김두관·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10일), 대

전·세종(11일), 서울(17일)에서 경선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한다.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